은행나무 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법

○임업연구원 산림생물부 산림곤충과장 이범영 박사에 의하면 최근 수도권지역의 은행나무 가로수에 발생되고 있는 해충은 차주머니나방으로서, 외국에서 침입한 해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토착해충으로 1970년대초 전남 및 경남지방의 일부지역 밤나무등에 경미하게 발생된 기록이 있으며, 1975년에는 전북, 경북으로, 1989년 이후는 서울, 인천에서도 국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발생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해충이라고 밝혔다.

○이 해충은 주로 도시 가로수인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 70여종의 수목을 가해하나 피해는 경미하며

○임업연구원은 현재 서울시내의 세종로, 신촌지역등 일부지역의 은행나무 가로수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천적의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계가 요망되는 해충이므로

○따라서 이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법으로는 줄기의 수피 틈이나 움푹파인 곳에 차주머니나방이 모여 월동하므로 겨울동안에는 벌레주머니를 채취하여 소각하며, 유충이 잎을 갉아먹는 5~6월과 8~9 월에는 그로유포제, 메치온유제, 메프유제 500배액을 수관에 충분히 살포하면 방제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사방사업법시행령 개정 공포

산림청은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공장부지 등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外 공공사업용 토석채취 허용, 사방지의 지정기간 단축, 사방지 해제시 사방사업에 투자된 비용면제 대상등을 확대하는 등 국토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의 부담경감과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시행령을 개정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 사방지가 목적달성되기 이전에는 도로, 공장부지등 용지로 직접 편입될 경우에만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한 것을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등 공공사업의 성토용이나 농지객토용·토석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도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제17조 제3항)

나.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해제는 사방사업 시행후 20년이 경과되어야 해제하던 것을 15년만 경과되면 해제하도록 하였으며(제17조 제4항)

다. 사방지 해제시 사방사업에 투자된 비용면제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서 농지·초지·농로 등 농어민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보조포함) 하거나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까지 면제하도록 확대하였다. (제19조 제3항)

고소득 우량 참나무 육성성공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는 고급 활엽수 개발을 위하여 외국산 참나무를 도입 연구한 결과, 생장과 특성이 재래종보다 우수한 고소득 참나무 품종을 육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이갑연 연구관에 따르면, 북미가 원산인 루브라참나무를 도입하여 지역적응성 검정 및 산지 시험결과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루브라참나무는 영명으로 레드오크라 부르며 고급가구재 및 마루판재를 비롯한 고급용재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100억원이 넘는 1만㎥이상의 원목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에 사용된 주요 체육시설에 다량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새로 육성된 루브라참나무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적응력이 강하여 재래종 참나무보다 약 1.5배이상 빠르며, 또한 재래종 도토리보다 대형인 종실은 식용 및 사료용으로 가능할뿐 아니라 단풍은 붉은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워 환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수종이다.

○따라서 '95년까지 채종림 50ha를 조성하여 우량종묘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당분간 종자공급은 원산지의 우량산지 종자를 도입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유망단기소득임산물 경제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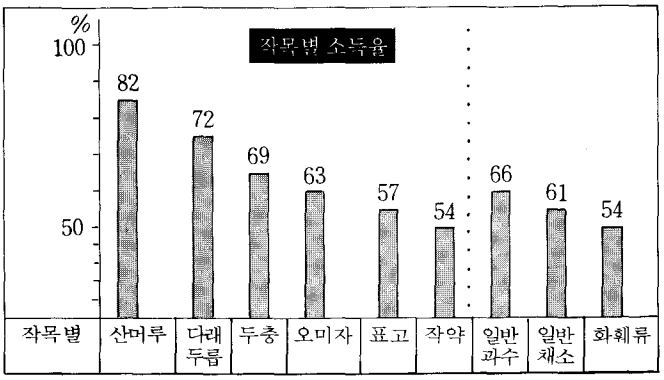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UR타결협상이후 경쟁력 있는 단기 임산소득원의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주요 단기임산물작목에 대한 수익성과 재배입지 분석결과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임업연구원에서는 앞으로 UR타결에 의한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단기임산 소득 작목의 소득

율과 재배입지를 분석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석한 주요임산물의 소득율을 보면, 산머루가 82%, 다래와 산두릅이 각각 72%, 두충이 69%로 소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미자·당귀가 각각 63%, 표고 57%, 작약 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소득율을 일반과수재배자의 소득율 64%, 일반 채소류 61%, 화훼류 55%와 비교할때 대체로 경쟁력이 높은 작목으로 분석되었다.



푸른산 살리기 운동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풍부한 푸르름 공급-

○산림청은 '91년 이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여 온 산지청결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탐방객과 행락객이 많은 주변산지, 공원, 관광지, 명산 등을 대상으로 각기관 및 자연보호단체, 기업체, 학교, 시민 등 전국민이 자율 참여토록 하여 각 주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 "푸른산 살리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산지의 관리 주체를 불문하고 11월중 전국 주요 산(국립공원, 관광지, 유원지)을 대상으로 쓰레기 일제 수거 작업계획을 수립 각 시·도, 영림서에 시달하면서 산림내 매몰된 오,폐기물은 물론 쓰레기를 발굴하여 운반토록 하며, 차량 운반이 불가능한 산 정상부 등의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서 헬기로 공중 운반하산토록 하였다.

○산림청은 '95년도부터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13,173명을 푸른산 파수군으로 임명하여 산지오염 요인인 산림내 쓰레기 및 오·폐기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산림내 취사행위, 화기물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정화운동을 국가에서 주도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가 하나라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푸른 산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한편, 산지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예외없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부과 등 엄중하게 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1차 한·중 임업협력회의 개최

산림청은 '94. 10. 19 10 : 00~12 : 00 까지 산림청회의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임업부장과 제 1 차 한·중 임업협력회의을 개최하고 양국의 임업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4. 10. 19, 10 : 00 산림청 회의실에서 곽만섭(郭滿燮) 산림청장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과 서유방(徐有芳) 중화인민공화국 임업부장등 중국측 대표단과 제 1 차 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임업 관심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진후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이날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①산림자원조성과 산림경영 ②산림자원조사 및 개발 ③산림생태계보존과 대기오염 규제 ④야생동물의 교류 ⑤임산물 가공과 무역 ⑥임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전문가 파견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상호협력키로 합의하고 오후에는 최인기(崔仁基) 농림수산부장관,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도 예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중국임업부장 일행의방한으로 양국간 우호증진은 물론 대중국 임업진출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일행은 우리나라에 머무는동안 광릉수목원과 산림박물관, 연곡 임업기계훈련원 및 대관령 자연휴양림, 인천의 합판공장 및 중질섬유판(MDF) 공장등 주요 임업관련시설을 시찰했다.

올해 순환수렵장 강원도

- 고정수렵장 제주도, 거제도 일제히 개강 -

산림청에서는 '94년도 수렵기를 맞이하여 순환수렵장인 강원도와 고정수렵장인 제주도 및 거제도를 오는 11월 1일 일제히 개장한다.

○산림청에서 밝힌 '94 수렵장 운영계획을 보면 수렵기간은 '94. 11. 1부터 '95. 2.

28까지 4개월간이며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1년씩 순환하는 수렵장은 강원도이고 매년 수렵을 계속하고 고정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로서 모두 3개소로 알려졌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별, 포획일자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수렵면허 종류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 1종(엽총)

(단위 : 천원

구 분	지 역	엽기내 (4개월)	90일	30일	10일	5일	3일
순환수렵장	강원도	500	-	300	180	120	80
고정수렵장	제주도	600	500	250	150	-	100
〃	거제도	300	-	200	120	-	60

- 2종(공기총)

(단위 : 천원)

구 분	지 역	엽기내 (4개월)	90일	30일	10일	5일	3일
순환수렵장	강원도	140	-	70	50	40	30
고정수렵장	제주도	120	90	60	40	-	30
〃	거제도	80	-	50	30	-	19

※ 3종(그물, 낚시, 활, 단, 석궁 제외)은 공기총과 같음.

산림은 산소(O_2)를 생산하는 공장

● 공기중의 탄산가스(CO_2)를 흡수하고 수분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글루우코스"라는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며, 그 부산물로서 산소(O_2)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 산림 1ha가 방출하는 산소(O_2)의 양은 1년동안 무려 45명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임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국산림관계관 회의

산림청은 '94. 11. 11(10 : 00)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영림관서 산림관계관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장기 임업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곽만섭(郭滿燮) 산림청장은 앞으로 임정방향에 대한 몇가지 구상을 밝히면서 전 산림공무원의 창의와 분발을 촉구했다.

○곽 청장이 밝힌 주요임정방향을 보면,

①산지는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이용 목적에 따라 재편하고『산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 고시 하겠다고 밝히고

② 임업도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임업주체의 육성, 계획적인 자원조성, 경영기반확충등 각종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과학적 경영을 위해『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③ 국유림은 산별, 지역별 완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사유림은 읍·면을 경영기본단위로 계획적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겠으며,

④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를『전업임업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세제·금융등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⑤ 품목별 생산자조합을 육성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권역별 임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⑥ 도시와 공단주변에는 대대적인 환경조림과 산림욕장을 쾌적한 환경과『국민건강의 숲』으로 활용토록 하고, 전국 주요국유림은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전면 개방하겠으며,

⑦ 정주권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차원에서 특색있는 산촌개발을 위한 전국산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⑧ 끝으로『국유림다목적경영법』과 사유림경영촉진을 위한『임업진흥촉진법』의 제정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95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등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정성드려 심은 나무
산불막아 보호하자